

되었음을 밝혀 보았다.

감리교는 선교 초기부터 신학적으로 개방적이었고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교단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보수와 진보 양자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외형적 교단의 분열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로교는 처음부터 보수주의 신학만을 절대시하고 그와 다른 신학을 소개하거나 가르치는 일조차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신학의 대두는 분열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장로교의 잡다한 분열은 위에서 언급한 근원적인 내재적 원인 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분열의 정당성은 실로 희박하다.

해방 후 가장 대표적인 분열은 고신파의 분립, 기독교 장로회의 분립, 그리고 통합파와 합동파의 분립인데 신학적인 견해차 혹은 교리적인 문제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정치 문제에서 파생된 교권적 배경이나 인연 혹은 지연 등의 인간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다.

특히 1970년대 말의 합동파의 내분으로 인한 분열은 이름 그대로 혼란의 연속이었고 그 분열에서 신앙 고백적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분열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많은 자기 변혁과 성찰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엡 1:23)에 대한 바른 교회관과 “하나 되기를 힘쓰라”(엡 4:1-6)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화합과 연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외형적, 기구적 통일(uniformity)을 절대시하여 진리를 희생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신앙 고백적인 일치(Unity)를 위한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 교회와 교육 문제

김용섭

### 1. 교회와 교육

무릇, 교육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 어느 하나의 역할만으로 인간 교육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한 형제·자매가 되어 이룩된 대가정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을 지체로 하여 형성된 신앙공동체요, 죄짓음받아 의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부 상조하면서 살아가는 특수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시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닮은 온전한 신앙인

격자로 성숙하여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단히 교육하는 하나의 학교이기도 하다.

교회가 수행해야 할 전도, 봉사, 구제... 등 여러 가지 기능들 중 교육의 기능은 그 어떠한 다른 것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씀의 선포나 성례의 집행이나 권징의 시행 등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은 그것이 바르게 이행되려면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이 선행되거나 또는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례의 역사와 함께 청중들의 지적·신앙적 수준이나 특성 및 제반 사정들을 감안한 말씀의 표현 내용과 표현 방법, 표현 기술 등에 대한 설교자의 교육적 배려 없이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두할 수 없다. 성례의 집행에 있어서도 교육 작용의 중요성은 마찬가지이다. 학습이나 세례를 받게 될 초신자들에게 대한 구원의 도리에 관한 교육의 필수성은 말할 것 없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한 떡과 잔의 참된 의미와 이에 참여함에 있어서의 바른 마음가짐과 준비에 따른 사전 교육이 없이는 성례식은 결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권징의 바른 시행에 있어서도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없을 것이다.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인도하고, 실족한 자들에게는 필요한 권면과 징계를 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릇됨을 깨달아 뉘우쳐 새사람이 되어 구원의 반열에 동참케 하는 것이 교회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능이라 할 때, 이 권징은 그 동기나 시행 과정, 절차, 작용 등 모든 것이 바로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에 있어서 교육의 기능이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큰 것으로서 교육 없이 교회는 그 본래적인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이러한 조명하에서 바르게 인식되고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 규범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이 되도록 양육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는 필요한 모든 물질·인적·사회적·심리적 방편들과 조건들을 구비해야 하고,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고 활용해야 한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원대한 목적과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성취하지 않으면 안될 목적도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교육 내용과 계획을 작성할 것이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쳐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효과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회는 이러한 교육 활동이 본래의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측정·평가하여 반성하고 부단한 개선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의 도구나 절차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모든 교육 행위나 과정을 과학화하고 능률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이러한 교회 교육의 내실화를 뒷받쳐 줄 수 있는 교육 시설이나 환경 등 제반 외적 여건들도 확충하고 충실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교육적 사명의 막중함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나 디모데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교육과 관련된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시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 19, 20)는 말씀으로 막중한 교육 사명 완수를 분부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권면으로 초대 교회의 감독에게 부과된 교육 임무 완수를 당부했던 것이다. “...가르치기를 잘 하며”(딤후 3: 2; 딤후 4: 11),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딤후 4: 11), “내가 이를 때가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착념하라”(딤후 4: 13),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딤후 4: 16), “...저

회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1). 위에 열거한 성경 구절들을 비롯해 많은 가르침들을 볼 때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교육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시되었던가를 알 수 있다.

사회적·문화적 여건이나 생활 규범이 단순했던 당시 예수님을 친히 따라 다니며 그의 행적을 목격하고 교훈을 직접 받아 전파(교육)하던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 중에 있었는데도 초대 교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그토록 강조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현대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한층 더 절실히 인식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역할은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권징의 행사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을 바르게 양육(교육)하고 중생시켜 그리스도와 닮은 인격자로 성숙시켜 하늘 나라의 참된 시민이 되게 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달성하는 지상의 기구-제도(institution)이다. 이러한 지상 교회의 과업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은 말할 것 없고, 효율적인 교육적 작용을 통한 영향, 감화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13에서는 교회 지도자(감독)의 교육적 사명이 말씀 증거와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preaching)과 가르치는 것(teaching)에 착념하라”]. 이는 교회의 모든 교육 행위가 곧 말씀 증거라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 증거는 그들에게 작용하는 교육적인 영향·감화를 통해서 실효를 거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 증거는 듣는 자들에게 교육적인 영향과 감화를 끼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뒤흔쳐 돌이켜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데 이러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육적인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 결코 제 2의적(第二義的), 부수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성령은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 안에 역사하여 그의 마음(heart)에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 거듭나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기독교) 교육인 것이다. 만일 교회의 기능 중 이러한 국면(교육)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지상 교회는 실로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 2. 교회 교육의 본질적 특징

일반 교육학에서 교육의 기본 개념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일환으로 교육을 무의도적 교육(Unintentional)과 의도적 교육(intentional), 또는 비형식적 교육(informal education)과 형식적 교육(formal education)으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자는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나 이를 실현키 위해 짜여진 조직화된 내용이나 이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방법이나 이들에 의해 가르쳐진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도구, 절차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작용이요, 후자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전 교육행위나 과정을 엄격한 의도적 계획하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의도적, 형식적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육 고유의 과업을 달성키 위해 적절한 시설, 환경, 자료 등을 갖추어 여기에 전문적 훈련을 쌓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를 고용하여 활용하고,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학생을 가르며 이 모든 교육의 내적·외적 관리를 위해 일정한 행정 체제를 운영한다. 이는 두말할 나위없이 학교 교육을 지칭한다. 교회 교육에 대해 고찰할 때 우리는 여기에 일반 교육에서 말하는 위의 양국면이 있음을 본다.

교회에 있어 무의도적·비형식적 특징을 띤 교육적 국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설교나 찬양대의 찬양이나 교회 내 여러 기

관들의 각종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설교와 여러 형태의 작용을 통해 교인들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비형식적으로 (informally) 교육받는다. 여기 비형식적이란 도달해야 할 구체적 목표나 이를 실현키 위해 설계된 조직화되고 계통화된 프로그램이나 효율진작을 위해 마련되고 선택된 시설, 환경, 재료 등 교육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갖추어진 매개나 도움 없이 교인들은 교육적 영향, 감화를 받는다는 말이다. 교회 교육에는 이와는 달리 의도적·형식적인 국면도 있다. 주일 학교나 하기 여름 성경 학교 등 계절 학교와 같은 것이 교회에 있어서의 형식적(의도적) 교육의 기관에 속한다. 이들 기관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화된 내용(커리큘럼)과 적절한 재료와 효율적인 방법 등을 가지고 헌신적인 교사들의 봉사를 힘입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교회 교육의 이러한 국면을 일반 교육에 있어서의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손색없는 형식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회의 본래의 존립 목적이 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일반 교육의 기준에 미흡하다 해서 이들 기관이 지닌 교육의 고유한 목적성과 기능성까지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교회 교육의 제반 기능을 과학화하고 전문화하여 교회 교육의 본래적인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 임무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힘써야 할 것이다.

교회 교육의 본질적 특징은 그것이 비형식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신앙에 바탕을 둔 사랑의 표현이요 이를 바탕으로 한 성도들의 교제 (fellowship)라고 하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토대가 되어야 하고 내용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토대로 하고 내용으로 하는 교회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아주 높고 넓다. 교회 교육은 지적 풍요화나 정서 순화나 사회성·도덕성의 진작이나 외적 기능의

숙련화 등 일반 교육이 추구하는 바를 결코 도외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교육이 이러한 제반 영역에서 추구하는 바는 세속 교육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다르다. 교회 교육은 어디까지나 신앙을 토대로 하여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제방면에 걸쳐 인간을 하나의 온전한 전인으로 성숙시킬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교육은 성경을 토대로 하고, 내용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에 의해 죄인을 회개시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교회 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고 여기에서 참된 생의 규범을 찾는다.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전인으로서의 중생된 인간성 실현의 유일한 근원은 성경이요, 성경만이 교회 교육의 표준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딤후 3:16)

이러한 (기독교) 교육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궁극적 목적이 달성된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죄인을 회개시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역사는 이룩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은 동사자에 불과하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 3:6,7)라는 말씀과 같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인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가꾸는 일뿐,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데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2:42의 기사에서 신약 시대의 교회 교육의 양상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현대 교회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신

약 시대의 교회 교육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었고, 또 당시 신자들의 생활의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신약 교회의 교육은 전 교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내용은 당시 그들의 생의 전부이었던 전도(evangelism)와 교육(education)과 예배(worship)와 교제(fellowship)였던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교육의 내용은 아주 포괄적이다.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전도)과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바르게 살도록 교화하는 것(교육)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통한 영혼의 바른 인도(예배)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의 봉사를 통한 신앙 공동체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있어서의 천국건설, 확장 운동(교제) 등 초대 교회의 생 전체가 바로 교육이었던 것이다. 현대 교회도 모름지기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리를 터득하여 참된 생을 누리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들어 복된 하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교회의, 아니 교회 교육의 본질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교회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 3. 한국 교회와 교회 교육의 과제

한국 교회는 불과 1세기 전에 복음을 받은 후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발전은 그 어디에서보다도 양적인 국면에서 볼 수 있다. 교회의 외형적 성장은 특히 근래에 가속화되어 어느 통계에 의하면 6.25 이후 십 년마다 교인들이나 이들을 수용할 교회의 수가 거의 배가해 왔다 한다. 이러한 추세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대형화와 이에 대응하는 물량적 팽창 현상을 낳아 교회 기능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노력 집중의 분산화를 일으켜 초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교회 고유의 본질적 특성을 변질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합리주의, 세속주의 등이 침식하여 신앙과 생활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교회와 성도들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그릇된 신비주의가 득세하여 세기말적인 죄악과 갈등에 시달려 방황하는 순진한 양의 무리들을 유혹하는가 하면, 말세에 나타나리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마귀의 힘으로 세상 재물과 술수를 동원하여 택한 자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어지러운 현실이 오늘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엄연한 상황인 것이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외적 대량화 추세 속에서 겪고 있는 내적 충실성의 상실, 물량주의 세속-합리주의의 득세 속에 나타나는 신앙과 생활의 순수성의 퇴색, 신비주의, 이단 신앙 풍조의 미혹 속에서 야기되는 영혼의 혼동... 등 이러한 현실의 거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내적·질적 충실성을 갖추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근자에 이룩되고 있는 외형적 성장에 부응하는 내적·질적 조건들을 다 갖추어 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룩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외형적·양적 팽창과 균형잡힌 내적·질적 충실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신앙과 생활의 바른 원리를 알아 깨닫게 하고 실행케 하는 바른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거창한 행사를 벌려 법석을 떠다 해서 한국 교회의 내실화의 과제는 달성될 수 없다. 각 교단, 각 교회마다 교육의 내적 국면과 아울러 외적 국면도 확충, 정비, 조직화, 과학화, 활성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막중한 과업을 달성하는 길

을 교육의 전문화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여기 교회 교육의 전문화란 교회 교육의 모든 국면들을 특성화하고 조직화하고 과학화하고 이를 활성화해서 그 능률을 크게 진작함을 의미한다. 교회가 아무리 특수한 사회 공동체라 해서 그 기능이 특이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교육만큼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고유한 특성을 심분발휘케 해야만 한다. 물론 교회 전체를 통괄하는 목회라고 하는 큰 규범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긴 하나, 교육은 목회 일반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감안하여 외적·내적 제 국면에 걸쳐 그 독자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전문화로서 한국 교회의 내적·질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

교회 교육의 전문화는 무엇보다도 교육 지도자의 전문화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교육 지도자의 전문화란 일반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그러한 기준의 전문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특수성에 따른 제반 여건을 존중·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교육 지도자로서 교회의 교육 과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좀 구체적으로 교회 교육을 총괄하는 유급 교역자를 예로 생각해 보자. 오늘날 대부분의(도시)교회에서는 부목사(중 한 분)나 다른 교육자에게 교육 임무를 감당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 교역자들은 교육 임무를 향존적인 본 임무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전담 목사(당회장)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잠시 머물러 가는 하나의 잠정적 경과 직무 정도로 생각하고 이 차원에서 교회의 교육 과업을 수행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기회만 있으면 조건이 좋은 위임 목사직을 구해 가기 일쑤이어서 이들이 맡은 교육 직책 수행에는 단절이 있게 마련이고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교회의 교육 업무 일체를 계획하고 관장하여 일관성있게 발전시켜 나

아가야 할 총책임자의 지위가 이러하니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고 체계화된 교육 정책이나 방안들이 있기 어렵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도 있기 힘들게 된다. 한국 교회의 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교육만을 항구적으로 전담해서 이끌고 나아갈 교육 전담 목사 제도의 제정이 시급하다. 교회 교육도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목회의 일부로서 위임 당회장 목사의 관할에서 궁극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에만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교육 전담 목사를 두어 독자성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 전담 교역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으로는 학부에 있어서의 교직 영역에 대한 준비 과정의 이수는 물론 신학 대학원에 있어서의 이 영역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교단적 차원이나 신학 교육 당국 차원에 의한 새로운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교육 지도자의 전문화는 교회 교육 전담 목사 제도의 제정·운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임무에 종사하는 교회 학교의 교사의 전문화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목표나 내용이나 시설, 환경 여건들을 구비하고 많은 투자를 한다 해도 헌신적이고도 유능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될 수 없다. 교회 교육은 이들 교사 개개인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므로 이들의 사명 의식이나 자질은 바로 교회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라고 하는 과제를 풀기 위해 교회는 먼저 교사의 임용에 유의해야 한다. 신앙이나 지적, 품성적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숙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고충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이들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의 수가 적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들로부터의 능동적인 참여나 협조를 얻기

힘들다는 데 있다. 어떠한 교회는 교사 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일단 임용된 교사들에게는 신앙심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교단 차원에서는 물론 개교회 차원에서도 다양하고 유효하게 계획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 기관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총회 교육 위원회나 각종 조직체가 주관하는 강좌, 연수, 강습 등 근자에 활성화된 이들 행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극히 바람직스러운 일들이다. 개교회적으로도 연구 수업, 특강 등이 교사들을 위해, 또 이들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을 보는 바 참으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총회 교육 위원회가 운영하는 교사 통신 대학은 과정 이수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교사 자격증까지 발급할 것이라 하니,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더욱 개선되고, 또 이에의 참여가 전 교사들에게 보편화될 때 교단 산하 교회 학교 교사들의 자질은 크게 향상되리라 믿는다.

교회 교육의 전문화는 무엇보다도 교육 내적인 요소들의 특성화, 조직화, 과학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장·단기에 걸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조직화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하고, 이 내용을 효율성있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합리적인 방법을 개발·활용해야 하며, 이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실제로 본래의 목적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측정하고 평가할 도구와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든 교육의 국면들을 과학화하고 능률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반 교육학이 오랜 동안에 걸쳐 연구하여 얻은 이론들과 기술들을 도입하여 교회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손상치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교수-학습 분야 등 눈부시게 발전한 일반 교육학계의 연구 성과를 외면한 상태에서 우리의 교회 교육의 발전을 기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우리 교회 교육의 발전은 훌륭한 지도자의 확보나 교육 내적 제

반 국면들의 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를 임용하여 그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지도의 방법과 평가 절차들을 구비해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교육 행위가 실제로 전개되는 시설, 환경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서는 만족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 교육의 전문화는 교회의 교육 시설이나 교육 환경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교육 시설, 환경의 전문화란 교육이라고 하는 고유한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물리적 조건들을 갖추어 확충하고,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을 말한다. 우선 교회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육 전용 건물이나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배당이 어린이들의 교육장으로 혼용됨으로써 비롯되는 교육 자체의 비능률의 지양도 급선무이지만, 교육활동으로 혼잡했던 동일 장소에서 드러지게 되는 예배 분위기의 경건성 저하 현상의 시정 또한 방지할 수 없는 우리 교회 현실의 단면이다. 각 학년, 연령급으로 편성된 학급마다, 혹 여의치 않으면 각 중단위 집단마다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을 갖추는 일은 너무 때 이른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욕심일까? 교편물이나 학습 자료 등도 우리에게 효율적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다. 교사의 일방 통행적인 설명이나 학생들의 앵무새적인 모방, 암송이 교육 활동 내용의 태반을 이루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이다. 교육의 내용이나 이를 배우게 될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각종 시청각 자료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심신, 제기능의 개발에 쓰여질 각종 교구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모든 여건들을 갖추기 위해 교회는 적정 수준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교육에의 참여 문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목적, 내용, 방법을 마련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 환경, 자료들을 구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교인들의 참여가 없

을 때엔 교회 교육은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일반 교인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교회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인으로서의 부당한 성장을 위해 교회의 교육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회 학교는 어린이들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청·장년, 노인 층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각기 알맞는 교육을 시켜야 하고,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성장이 성경 진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의 실행에서 가능함을 깨달아 누구나 교회가 마련한 교육 기회에 적극 참여하는 열심을 보여야 한다. 교회 참석이나 연보, 전도, 봉사 활동 등 그 어느 나라 교인들 못지않게 열심인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가 아닌가? 이러한 한국 교회가 유독 교육 분야에만 그 열심의 균형이 깨어져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 교회를 아는 사람은 그쪽 교인들의 교육에의 참여와 우리의 그것과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고 기이하게 여긴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녀 청·장·노년의 전 연령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이들의 적극적 참여는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준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교회 학교의 교육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주일 학교에 출석한 사람들의 수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를 비교해 보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주일에 가족끼리 휴가를 가는 경우도, 주일 학교 공과 시간을 마치고 여행길에 오르는 교인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바, 이는 그들이 교회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교회 교육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줄 안다. 미국의 주일 학교에는 대학교수, 판사, 검사 등에서부터 일반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사로 또는 순수한 학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교회의 주일 학교에는 어찌하여 교인들, 특히 성인층의

참여가 미흡한가? 한국 교회는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하고 모든 연령 집단에 적합한 교육 운영을 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교인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선교 2세기에 접어든 한국 교회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에 도취하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내·외적으로 노출된 병폐들을 찾아 바르게 진단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름지기 우리는 우리의 선교 제 2세기를 향한 발전 전략을 우리 교회의 내적·질적 정비와 충실화에서부터 모색해야 할 것인바,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교육의 내적·질적 정비와 충실화에서 가능하리라 믿는 바이다.